

研究論文

1910~1920年代 經學院의 人的 構成과 役割  
- 司成과 講士를 중심으로 -

정 옥 재\*

I. 머리말	V. 맺음말
II. 經學院의 職制	<참고문헌>
III. 司成의 性向과 役割	<국문요약>
IV. 講士의 活動과 役割	

I. 머리말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는 유교와 유교 지식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비록 근대의 다양한 사상조류가 한국에 들어오고 유교적 윤리·도덕, 신분질서의 규범 등이 전에 비해 땅에 떨어졌지만, 조선왕조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당시에든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일제는 강점 과정에서 투철한 항일의식을 지닌 유교 지식인들의 투쟁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또한 지방에 있는 유교 지식인들의 위상과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엘리트였던 유교 지식인들의 항일 의지를 제압하는 동시에 안정된 식민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교와 유교 지식인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한국 유교의 특징점을 경멸, 말살하고 유교의 보편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식민지 체제 유지와 사회 교화에 활용하는 한편, 한국의 유교 지식인

---

\* 충남대학교 강사, 한국유학사상사 전공(echhart@hanmail.net).

들의 항일 의지를 꺾고 그들을 통제하며 친일 유교 지식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經學院의 설립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왕조에서 유학 교육에 관한 일을 관장했던 成均館을 폐지하고 1911년 6월 15일에 총17조의 經學院規程(조선총독부령 제73호)을 공포하여 경학원을 설립하였다. 경학원규정 제1조에서 “朝鮮總督의 監督에 屬하여 經學을 강구하며 文廟를 제사하며 風教德化를 裨補함을 目的”<sup>1)</sup>으로 한다고 밝힌 것처럼 경학원은 釋奠祭의 거행과 경학 강연만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즉, 경학원은 조선총독이 직접 감독하고 관할하는 직속기구로서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에 따라 통치에 필요한 교화와 선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학원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sup>2)</sup> 선행 연구로 인해 1920년 대까지의 경학원에서 활동하였던 직원의 구성과 경력, 경학원의 운영과 사업, 경학원을 통한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sup>3)</sup> 경학원의 교화사업과 조선총독부의 조선 유교정책의 의도,<sup>4)</sup> 경학원과 부설된 明倫學院의 고찰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유교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조선인의 교화정책의 내용과 그에 호응한 유림집단의 동향, 경학원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sup>5)</sup> 등이 밝혀져서 경학원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거시적인 틀 속에서 경학원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시기별 경학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유교 지식인들의 활동과 역할, 지방 유교 지식인들의 경학원에 대한 인식과 관계, 경학원을 통한 조선총독부의 유교 정책이 어떻게 한국 유교의 사상적인 특징점을 파괴시키며 체제 유지를 위한 皇道儒學으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준 일본인들과 일본 유교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는 아

1) 「朝鮮總督府令」 제73호, 經學院規程 제1조.

2)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1993); 정규영, 「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 『학생생활연구』, 4(1996); 柳美那, 「植民地時期朝鮮における經學院 儒敎教化機關と儒敎イデオロギーの再編」,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2(2004a); 柳美那, 「植民地時期朝鮮における明倫學院 ‘儒敎振興’をめぐる植民地權力和儒敎勢力の相克」, 『史滴』, 26(2004b); 류미나, 「식민지권력에의 ‘협력’과 좌절: 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26(2005).

3) 이명화, 앞의 논문.

4) 정규영, 앞의 논문.

5) 류미나, 앞의 논문(2004a; 2004b).

직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선 1910~1920년대 경학원에 참여했던 유교 지식인들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0~1920년대 경학원에서 司成과 講士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유교 정책과 경학원의 역할<sup>6)</sup>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활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경학원규정을 간략하게 검토하여 명목상 경학원의 직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각각 어떤 임무를 담당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학원 기관지인 『經學院雜誌』를 주자료로 삼고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經學院書類』, 『經學院雜書類』 및 신문 등을 보조 자료로 하여 경학원에 참여하는 유교 지식인들의 역할과 유교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는 경학원에 참여한 유교 지식인들이 한국 유교를 변질시켜 결국 1930년대 말 이후 황도유학으로 변해가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일정한 시사를 줄 것이다.

## II. 經學院의 職制

경학원의 목적, 직제, 운영 등을 보여주는 것이 총17조의 경학원규정이다.<sup>7)</sup> 각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1조는 경학원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여 경학을 강구하며 풍교덕화를 비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경학원의 설립 목적을 말한 총론에 해당한다. 제2조는 경학원은 京城에 두도록 규정하였다. 제3조는 조선총독은 各道로부터 學識德望이 있는 자를 講士로 기용하여 경학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4조는 매년 춘추에 문묘 제사를 거행하는데 제사는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아 대제학이 행하고 경학원강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학원의 직제와 관련된 내용이며, 제10조는 경학원 직

6) 정규영은 경학원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경학원을 중심으로 한국유교계를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정규영, 앞의 논문, 60~62쪽).

7) 총17조의 경학원규정은 크게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역문 두 종류가 있다. 『총독부관보』 제237호에 일본어 원문이 실려 있고, 경학원의 기관지 『經學院雜誌』, 1호에 한국어 역문이 실려있다. 그리고 『경학원잡서류철』에도 경학원규정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일본어 원문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았다.

원에게 수당을 준다는 내용이다. 제11조는 만60세 이상의 講士로 공로나 덕망이 현저한 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과 경성 이외에 거주하는 강사로 경학원에 참여하는 자는 여비를 준다는 내용이다. 제12조부터 제17조는 경학원 직원과 강사의 수당, 여비,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방법, 매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모든 사항을 시행할 때에는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려는 조항은 제3조와 제5조~제9조로 경학원의 인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 부분이다. 우선 제3조에 규정된 講士라는 직책은 경학원의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그런데도 경학원의 직제를 규정한 조항보다 먼저 나온 것은 조선총독부가 강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강사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논하겠지만, 강사는 경학원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경학강연과 지방순회강연을 담당하였다. 즉, 강사는 지방에 있는 유교 지식인들을 회유·포섭하여 조선총독부의 유교 정책에 동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직책으로 경학원의 일선 실무자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각도의 강사를 선정하는 일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임명된 강사들을 각별하게 대우하였다. 1920년대까지를 한정해서 볼 때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강사는 유교적 소양이 깊은 친일적 성향의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각도의 유림을 대표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강사 중에서 경학원 부제학, 대제학까지 임명되는 인물도 있었다.<sup>8)</sup> 그리고 강사의 재직 연한은 1930년대까지 규정되지 않아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한 강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sup>9)</sup>

제5조~제9조는 경학원의 정식 직제를 규정한 부분이다. 그런데 규정과 실제 자료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5조는 경학원의 직원으로 大提學一人, 副提學二人, 祭酒五人, 司成若干人, 直員若干人을 둔다고 하였다. 우선 경학원의 직책명은 조선왕조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11년 7월 31일에 조선총독부는 대제학, 부제학, 사성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sup>10)</sup>

8) 경학원 강사 중에서 鄭萬朝, 鄭鳳時는 부제학을 거쳐 대제학까지 오른다.

9) 1940년 11월 12일로 조선총독부령 제240호에 의해 경학원규정 제3조가 개정되어 경학원 강사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경학원잡지』, 46(1942), 12-13쪽.

10) 『경학원잡지』, 1(1913), 44쪽.

&lt;표 1&gt; 1911년 경학원 직원 명단

직책	작위	성명	재임기간	비고
大提學	子爵	朴齊純	1911. 7. 31~1916. 6. 24.	사망으로 면직
副提學	子爵	李容植	1911. 7. 31~1919. 7. 16.	독립청원으로 면직
	男爵	朴齊斌	1911. 7. 31~1921. 9. 5.	사망으로 면직
司成		金有濟	1911. 7. 31~1914. 10. 7.	"
		李人植	1911. 7. 31~1916. 11. 24.	"

곧이어 1911년 9월 8일에 당시 대제학 박제순의 薦報로 朴稚祥, 李大榮, 鄭喆永 세 사람이 경학원의 말단직인 直員으로 임명된다.<sup>11)</sup> 이렇게 대제학, 부제학은 규정대로 각각 1명, 2명을 임명되었고 정확한 인원수를 표시하지 않고 약간인으로 규정된 사성과 직원은 각각 2명, 3명이 임명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가 사성은 2명을, 직원은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되었고 이는 1930년대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5명으로 정해진 胙酒(祭酒)는 임명되지 않았으며 이후 胙주는 단 한번도 임명되지 않는다. 원래 胙주는 조선 때 성균관에 두었던 정3품의 벼슬로 학행과 덕망이 높은 선비를 뽑아 임용하였던 관직<sup>12)</sup>으로 주로 釋奠의 제향을 맡았다. 경학원의 설립 목적이 석전제의 거행과 경학 강연임을 염두에 둔다면, 석전제를 주관할 胙주를 뽑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이것은 조선사회에서 왕실의 권위와 엄숙한 위계 질서를 보여주었던 문묘 석전 의례를 조선총독부가 의도적으로 변질시켜 조선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권력의 소재가 조선총독부에 있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제6조~제9조는 대제학, 부제학, 胙주, 사성,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명되지 않는 胙주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제6조에 대제학은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를 總理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에는 부제학은 대제학을 보좌하고 대제학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제9조에 사성은 上職(대제학, 부제학-필자)의 지휘를 받아 院務에 종사하고 直員은

11) 『경학원잡지』, 1(1913), 45쪽.

12) 『대전회통』.

上職(대제학, 부제학, 사성-필자)의 지휘를 받아 庶務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다.

1910년~1920년대 경학원의 대제학, 부제학은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로서 작위를 받은 인물과 유학의 소양이 깊고 학문적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으며 대부분 고령의 나이였다. 대제학, 부제학은 경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으나 일종의 명예직에 가까웠다. 경학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것은 사성이었다. 자료를 살펴보면 2명의 사성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하며 경학원의 업무를 관리한 것 같다. 그리고 경학원규정에는 대제학에서 직원까지 경학원직원의 재임 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sup>13)</sup> 또는 다른 곳으로 전임되거나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청하지 않는 이상 경학원에서 면직되는 경우는 없었다. 경학원의 직원은 종신직으로 선임자가 죽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었다. 대제학과 부제학의 후임자는 외부 인물을 임명하거나,<sup>14)</sup> 경학원 직원이나 강사, 사성에서 단계를 거쳐 승진하였다.<sup>15)</sup>

### III. 司成의 性向과 役割

#### 1. 합병 이전 司成들의 行蹟과 性向

일제는 의병투쟁을 철저히 진압한 후 식민지 사회 안정과 유교 지식인들의 통제를 위하여 경학원을 활용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경학원을 중심으로 유교와 유교 지식인들을 지배정책에 이용하려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유교의 충효의 이념이 일본에 대한 충성심 배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지녀온 부모, 교사, 어른에 대한 존경과 공순함을 이용하여 이를

13) 사망한 박제순의 뒤를 이어 경학원 2대 대제학이 된 金允植과 부제학 李容植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 二人連名으로 독립청원서를 조선총독과 일본내각 총리대신에게 발송하였다. 그 때문에 김윤식과 이용직은 작위도 박탈당하고 직위에서도 물러났는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학원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로 물러난 대제학, 부제학은 없다.

14) 1920년대까지를 한정한다면, 成岐運(부제학, 대제학), 朴箕陽(부제학), 尹喜求(부제학), 兪鎮贊(부제학) 등을 들 수 있다.

15) 李大榮은 경학원 말단인 直員에서 시작하여 부제학까지 올랐다.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한 것이었다. 둘째는 유교 지식인들은 농촌 사회에서 ‘지방유력자’로서 지도적 지위를 아직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에 대해 강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교 지식인들의 반일 의식을 약화시키는 한편 총독부의 지배정책에 대한 협조 유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는 경학원을 중심으로 유교 지식인들이 유교의 ‘仁義忠孝’로써 한국의 인민들을 교화하는 역할을 맡아주기를 기대하였다.<sup>16)</sup>

경학원의 사성과 강사들은 조선총독부의 이런 유교 정책에 적극 호응, 활동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경학원 사성은 1930년대까지 2명이 임명되어 경학원의 업무를 담당했다. 우선 1910년~1920년대에 활동한 사성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sup>17)</sup>

<표 2> 1910~1920년대 활동한 경학원 사성 명단

이름	본관	생몰년	재임기간	전 직	연수당	비고
金有濟	慶州	1852. 8. 29 ~1914. 10. 7.	1911. 7. 31 ~1914. 10. 7.	성균관장	1000엔	
李人植	韓山	1862. 7. 27 ~1916. 11. 25.	1911. 7. 31 ~1916. 11. 25.	대한신문사사장	900엔	
朴稚祥	密陽	1866. 2. 10 ~1918. 3. 7.	1914. 10. 15 ~1918. 3. 7.	經學院直員	800엔	김유제의 후임
鄭崙秀	東萊	1872 ~1921. 4. 29.	1917. 1. 13 ~1921. 4. 29.		990엔	이인직의 후임
金完鎭	安東	1877. 1. 1 ~?	1918. 6. 1 ~1939. 4. 1.	도서기, 군수	1900엔	박치상의 후임
李大榮	?	1878~?	1921. 7. 31 ~1936. 1. 18.	經學院直員	1200엔	정윤수의 후임

1910년대에 경학원 사성으로 활동한 인물은 김유제와 이인직, 박치상, 정윤수이다. 김완진, 이대영은 1920~1930년대에 경학원 사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16)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131~133쪽.

17) 『경학원잡서류철』, 『경학원잡지』, 『조선총독부 직원록』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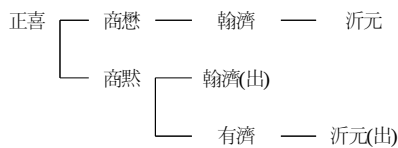
특히 이대영은 1936년에 부제학으로 승진되었다. 6명의 사성들은 나이, 출신, 명망, 유학의 소양 등이 서로 차이가 나지만, 당대 지식인 그룹으로서 단체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그들은 합방 이전부터 여러 단체에 함께 속해 활동한 경우가 많으며 그 속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 같다. 그렇다면 6명의 사성들이 경학원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서로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를 통하여 그들의 성향과 한국합병 후 일제의 유교정책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 연관된 단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합방 이전 경학원 사성의 단체 활동

	김유제	이인직	박치상	정윤수	김완진	이대영	기타 경학원 관계자
기호흥학회	●	●	●		●		김윤식, 박제빈, 이용직 등
대동학회	●	●				●	김윤식, 이용직, 박제빈, 성기운, 여규형, 정봉시, 성낙현, 정만조 등
공자교회	●	●					이용직, 여규형, 박제빈, 정만조, 이인직 등

사성들 중에서 명망이 높고 유학적 소양이 깊은 인물로 김유제를 들 수 있다. 김유제는 명문가의 후예로 秋史 金正喜(1786-1856)의 종손이며<sup>18)</sup> 경학과 서법에 능한 인물이었다.<sup>19)</sup> 그는 대한제국시대에 관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경학원의 전신인 성균관장을 역임하였다.<sup>20)</sup> 그런 인물이 60살의 고령으로 오히려 강등으로

18) 김유제의 가계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慶州金氏鶴洲公派世譜』(2000), 193~200쪽.



19) 《매일신보》, 1914년 10월 13일.

20) 김유제는 공조좌랑, 홍문관부수찬, 사간원정언, 시강원겸상서, 첨지돈녕원사, 금성군수 등을 역임하였다(『대한제국관원이력서』, 105쪽).



볼 수 있는 경학원 사성의 임명을 받아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가 합방 이전에 보였던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김유제는 1908년에 畿湖興學會, 大東學會에 참여하였다. 기호흥학회에 애국계몽 단체이긴 하지만, 그 회원들 중에는 친일파가 많았다. 기호흥학회에 김유제는 贊務員으로 참여하였는데, 이인직과 2대 경학원 대제학인 김윤식, 초대 부제학 박제빈도 찬무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역시 초대 부제학인 이용직은 회장을 맡고 있었다.<sup>21)</sup> 당시 기호흥학회에는 評議員으로 박치상, 김완진이 있었다. 김유제, 김윤식, 이용직, 박제빈 등은 연배가 비슷하고 서로 교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인직, 박치상, 김완진은 비교적 청년층에 속하여 서로 교류는 있었을 것이나 김유제 등과는 나이와 명망 등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교분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유제를 비롯한 유교 지식인들의 친일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대동학회의 참여이다. 일제침략기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한 유림단체들이 속출하자, 일제는 당시 전국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던 유림계를 회유하여 친일화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갔다. 일제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이완용·조중응이 伊藤博文에게서 만 엔의 자금을 지원받아 掌禮院卿과 修學院長을 지낸 申箕善, 이용직 등을 내세워 유교와 신·구사상의 통합을 표방하면서 전직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친일유교단체인 대동학회를 조직하였다.<sup>22)</sup> 《대한매일신보》는 ‘保護를歌舞하고 結日を力倡’했다고 지적하고, 회장 신기선을 당시 3대 매국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할 정도로<sup>23)</sup> 당시 대동학회를 비판했다.

대동학회에는 김유제를 비롯하여 김윤식, 이용직(2대 회장), 박제빈, 성기운, 경학원 강사로 크게 활동하는 呂圭亨, 鄭鳳時, 成樂賢 등이 참여하였다. 이 때 이대영<sup>24)</sup>은 書記로 활동하였으며,<sup>25)</sup> 이인직도 대동학회에 참여한 것 같다.<sup>26)</sup> 그리고

21) 《畿湖興學會月報》, 1(1908), 50-53쪽.

22) 權五榮, 「申箕善의 東道西器論研究」, 『정계사학』, 1(1984), 131-132쪽; 유준기,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친일화정책과 유림계의 대응」, 『한국사연구』, 114(2001), 66-69쪽.

23)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8일 1면.

24) 자료의 미비로 이대영의 정확한 생몰년과 경력에 관해 알 수 없다. 그러나 1909년 일본 관광단에 포함되었고 유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반신분에 속한 인물인 것 같다.

25) 《대동학회월보》, 1(1908), 71-73쪽.

26)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이인직연구』(국학자료원, 2006), 35쪽.

대동학회는 기관지인 《대동학회월보》를 간행하였는데, 필진들이 김윤식, 여규형, 신기선, 鄭萬朝 등 당대 유명한 유교 지식인들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학원에 참여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대동학회월보》에 실린 글들은 당시 皇城新聞이나 大韓每日申報처럼 대중의 계몽이나 애국사상을 불러일으키려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민족사의 흐름과 무관하게 진행된 내용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國漢文論爭에서 漢文 옹호를 고수하고 일본 문명에 경도되어<sup>27)</sup>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詞藻’ 소재 한시는 일본문화를 찬양하고 일본인에게 아부하는 내용과 회고적 감상에만 그쳤으며 일제의 침략성을 직시하지 못하였으며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였다.<sup>28)</sup>

경학원 직원에서 출발하여 부제학까지 올랐던 이대영이 지은 ‘冬天梅月’이란 시를<sup>29)</sup> 하나의 예로 살펴보면 이런 경향을 추찰할 수 있다.

겨울 눈 속 매화에 공경을 표하노니	揖手冬天雪裏梅
한 가닥 살려는 마음 일찍 생명을 품었네.	一絲生意早含胎
가지를 뚫고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如非劈剔枝柯出
어디서 봄이 오는지 어찌 알 수 있을까!	詎識春從何處來

이대영은 매화를 일본에 비유하고 봄을 우리나라에 비유하여 일본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근대화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30)</sup> 이런 이대영의 의식은 일본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보고 온 후 더욱 강해진 것 같다. 그는 경성일보사 주최로 1909년 4월 11일에서 5월 10일까지 제1회 일본 관광단(94명)에 포함되어 일본의 근대문명과 명소를 보고 왔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 속에 진행된 이 행사에서 그를 포함한 관광단원들은 일본의 근대문물에 압도당하고 한국의 초라한 현실을 한탄하였다.<sup>31)</sup> 이대영을 비롯한 관광단원은 한국에 돌아온 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들이 일본에서 견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국각지에 유세

27) 姜明官, 「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1985), 215~247쪽.

28) 鄭洪烈, 『『大東學會月報』 詞藻欄 所載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29) 《대동학회월보》, 1(1908), 54쪽.

30) 정홍렬, 앞의 논문, 24쪽.

31) 朴羊信,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東洋學』, 37(2005), 71~78쪽.

를 하게 되었다. 이대영은 경기도 지역에서 유세하였는데, 9월 11일에 경기도 각 군(陰竹, 利川, 驪州)에서 일본의 문명발달과 식산공업의 진보를 언급하고 일본의 보호에 의뢰하여 교육과 실업을 융성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sup>32)</sup> 이대영 외에 경학원 강사로 참여하게 되는 정봉시(강원), 정준민(경남), 정만조(전남)도 각각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역시 같은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sup>33)</sup> 이렇게 이대영 뿐만 아니라 정봉시, 정준민, 정만조 등은 의도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 1909년부터 한국은 문명국인 일본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그들은 자연스럽게 경학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동학회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친일 유림 단체로 많은 비난을 받아 분위기가 침체되자, 이를 일소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명분을 앞세워 1909년 10월에 공자교로 개칭하였다. 당시 공자교는 伊藤博文으로부터 25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창립되었다는 설<sup>34)</sup>이 유력할 정도로 친일 성향을 지닌 단체였다. 김유제는 공자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는데, 김유제 외에도 이용직, 박제빈, 여규형, 이인직, 정만조 등 경학원에서 활동할 인사들이 대거 공자교에 참여하였다.<sup>35)</sup> 이렇게 대동학회, 공자교회를 중심으로 친일 유교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경학원의 중심세력이 된 것이다.

이인직은 한국 최초의 신소설 작가로 유명한 인물로 1900년 2월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파견된 후부터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sup>36)</sup> 이인직은 러일전쟁당시 일본육군성 한국어통역으로 제1군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일본군을 위한 통역업무에 진력하였다. 따라서 1905년에 전쟁의 공로자들에게 대한 공훈심사에

32) 「李大榮의 京畿道遊說 報告 件; 高秘收第五二八五號ノ一」, 『統監府文書』, 10권. “京畿各郡遊說中ノ觀光團員タリシ李大榮ハ九月十一日ヨリ二十日迄ニ陰竹・利川・驪州ノ三郡邑ニ演說會ヲ開キ陰竹ニ於テハ約二百名, 利川ニ於テハ約七十名, 驪州ニ於テハ約百名ノ來聽者アリタリ演說ノ趣旨ハ各地同一ニシテ則チ日本ノ文明發達シ殖産工業ノ進歩セルコトヨリ…韓國民ハ速ニ迷夢ヲ去リ日本ノ保護ニ依頼シ教育實業ヲ盛ナラシムヘキコトヲ勸メ各地多少ノ感動ヲ與ヘタルノ狀アリト 右及報告候也.”

33) 박양신, 앞의 논문, 77~78쪽.

34) 유준기, 앞의 논문, 72~73쪽.

35) 『孔子教會之既往及將來』, 40쪽. “發起人 李容植 呂圭亨 金鶴鎮 洪祐哲 洪承穆 李舜夏 閔丙漢 金有濟 朴濟斌 鄭宣興 鄭鎮弘 徐相助 尹喬秉 李義惠 李胤鍾 鄭萬朝 尹惠榮 李人植 李膺種 鄭丙朝 朴濟璉 朴晶東.”

36) 이인직과 그의 문학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앞의 책 참조.

서 심사위원 전원에게 功勞甲으로 인정받아 80원의 賜金을 받았다.<sup>37)</sup> 그의 친일적 성향은 이완용의 개인비서로 활동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되었다. 1909년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의 밀명을 받고 일본을 방문하여 한국병합을 둘러싼 일본 정계와 여론의 반응을 정탐하였고,<sup>38)</sup> 이어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즈 미도리(小松綠)를 비밀리에 만나 일본과 한국의 강제병합을 모의하는 밀담을 나누는 등 한일합병조약의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39)</sup> 조선총독부가 이인직을 경학원 사성에 임명한 것은 이와 같이 합방 전의 적극적인 친일활동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인직은 경학원 사성의 역할에 대한 전형을 보일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박치상은 대한제국시대에 관립소학교 교원 및 교장, 관립교동보통학교 교원 겸 교장을 역임하였는데,<sup>40)</sup> 합병 전후에 뚜렷한 친일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학원이 설립되고 바로 경학원 직원으로 들어온 것과 1912년 8월 1일에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것<sup>41)</sup>을 미루어 볼 때 친일적 성향의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김완진은 대한제국시대에 學部書記郎 등을 역임하다가<sup>42)</sup> 합병 후 조선총독부 도서기, 군수 등을 지낸 인물이다. 그도 박치상과 함께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sup>43)</sup> 정윤수는 경력과 합방 전후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나 김윤식과 교류가 있었으며 그를 이인직의 후임으로 경학원사성에 천거한 것으로 보아<sup>44)</sup> 정윤수는 명문가의 양반신분이며 유교적 소양이 있는 인물로 보인다.

이렇게 1910~1920년대에 활동한 사성들은 뚜렷한 행적이 보이지 않는 정윤수를 제외하고는 합방 이전부터 대체로 친일적 성향을 지닌 지식인들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그들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학원직원에 임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

37) 『공립공문서관 명치 41년 서훈록』 권4, 외국인2(1908).

38) 『李人種の行動 乙秘第二八四九號 (명치42년 12월 24일)』, 『伊藤公爵薨去後ニ於ケル韓國政局竝ニ總理大臣李完用遭難一件』(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분류번호 1-6-1-39).

39) 小松綠, 『明治外交秘話』(原書房, 1976), 274~277쪽.

40)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1972), 205쪽.

41)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2일(부록).

42)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1972), 843쪽.

43)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6월 2일(부록).

44) 김윤식, 『續陰晴史』권16, “二十日乙卯 鄭崙秀司成補任 土, 曉, 雪寸許仍霽, 清和, 華表午間僅至三十八度, 益昇·李謙承·鎮穆·伯河·俞參與官星濬·田中德太郎·李大榮·安住居·經學院司成李人植身故, 代以鄭崙秀薦報矣, 已經月餘, 今才敘任, 辭令書出來.”

이 경학원을 통해 한국 유교 지식인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 2. 司成의 活動과 役割

경학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釋奠祭 시행, 경학강연회 개최, 기관지인 『경학원잡지』의 간행이다.<sup>45)</sup> 경학원 사업 중 경학강연과 『경학원잡지』<sup>46)</sup>의 간행에서 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학강연과 『경학원잡지』 편찬 양쪽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전범으로 이인직을 들 수 있다. 이인직과 함께 사성이 되었던 김유제는 원로였기 때문에 주로 경학원에서 원무를 수행한 것에 비해 이인직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다. 이인직이 경학원 사성으로 어떻게 활동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인직은 1913년 5월 1일 경상남도와 충남, 전북 등지를 출장가서 해당 유교 지식인들의 정황을 시찰하였으며,<sup>47)</sup> 10월 30일 전북 등지에 출장 가서 당시 전북 강사인 金東振의 순회강연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11월 27일에 경학원은 이인직의 全北視察狀況報告書를 접하게 된다. 그 안에 이인직이 금산군에서 행한 강연 요지가 들어 있었는데, 조선왕조의 통치를 비판하고 일본의 지배정책을 찬양하는 내용이였다.<sup>48)</sup> 그는 1914년 6월 30일에 함북 등지에 출장가서 해당 지역 유교 지식인들의 정황을 시찰한 후, 그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경학원은 그것을 8월 14일에 접한다.<sup>49)</sup> 그 보고서에는 이인직이 함북 등지에서 행한 연설이 수록되었

45) 이명화, 앞의 논문, 93-98쪽, 류미나는 1930년 중반에 시행되는 ‘훈인식장의 설치’를 경학원의 사업에 추가하고 있다. 柳美那, 앞의 논문(2004a), 111~113쪽.

46) 季刊誌를 표방한 『경학원잡지』는 1호가 1913년 12월에 간행되어 1944년 4월에 44호까지 간행된다. 1913년 간행 초년을 제외하고는 일년에 4회 나온 경우는 세 번(1914, 15, 18년)뿐이며, 3회 나온 경우는 2번이고 (1916, 17년) 나머지는 일년에 1~2번 간행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이명화, 앞의 논문, 柳美那, 앞의 논문(2004a) 참조.

47) 『경학원잡지』, 1(1913), 50쪽.

48) 『경학원잡지』, 2(1914), 51-58쪽. “今朝鮮人이 併合後 新政治에 浴化하는 상황은 先히 講士 講演 中에 備盡한 말이 有은즉 余가 加疊지 아니하여도 諸君의 知할 바이나 然이나 余로 하여금 新政을 言할진대 朝鮮生民이 塗炭中에 在한 것을 救함이오 其官吏가 職務에 竭力함을 見할진대 可謂 獻身的 勤務이라...”

49) 『경학원잡지』, 4(1914), 53쪽.

는데, 병합 후 일본이 한국에게 베푼 은택을 1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일제의 병합과 정책으로 한국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50)</sup>

그런데 1915년 9월 10일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대제학 박제순이 사성 박치상을 대동하고 총독부에 가서 ‘교육에 관한 勅語’(교육칙어)를 가져와서 경학원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강연회를 열 때마다 먼저 교육칙어를 봉독하는 것으로 강연규정을 개정하게 된다.<sup>51)</sup> 1890년 일본에 발포된 교육칙어는 천황제 국가주의 도덕 사상을 강조한 내용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소위 일본 국민 교화의 최고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육칙어의 목적은 유교의 충효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률을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하여 忠國愛君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sup>52)</sup>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의 경학원과 학교 교육에 교육칙어를 도입한 것은 한국인을 일본인과 같이 충량한 신민으로 동화시키려는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칙어의 영향이 경학원 사성 및 강사의 강연에 나타난다. 1916년 함남 등지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인직은 강연제목을 ‘한국인의 행복은 일본과의 동화에 달려 있다(鮮人 絶對的 福利가 同化에 在)’고 정하고 ‘鮮人の 腦髓에 大和魂에 化키 願함’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일본과의 동화를 주장하였다.<sup>53)</sup> 이인직은 강연의 주제는 유교의 진흥을 빙자한 일본 식민통치의 찬양과 홍보, 적극적인 복종과 동화였다. 이런 경향은 다른 사성들의 강연에서도 이어졌다. 조선 성리학의 가치와 전통은 무시하고 오히려 비판할 대상이 되었으며, 유교의 많은 논리체계 중에서 사회 교화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만 선택되었다. 특히 김완진, 이대영의 유교에 대한 강연은 일제의 통치를 받는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유교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부활시키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sup>54)</sup> 즉, 그들의 강연은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50) 『경학원잡지』, 5(1914), 58~67쪽. “天이 斯民을 吊하사 倒懸의 苦를 구하니 正是明治四十三年八月秋라. 寺內總督이 先帝陛下聖旨를 奉하야 朝鮮合併을 斷行하였는데 其新政의 施한 바를 見한즉 비록 法治政治規模中에 出하였으니 實로 純然한 德治政治의 教化이라. 茲에 併合후 諸般恩澤을 逐條說明하오리다…”

51) 『경학원잡지』, 9(1915), 40쪽.

52) 김필동, 「근대 일본 사상의 형성」, 『日本思想의 理解』(시사일본어사, 2002), 132~133쪽.

53) 『경학원잡지』, 10(1916), 56~61쪽. “…余가 數年來에 朝鮮人前途의 福利를 企圖하는 婆心으로 研究에 研究를 加한즉 鮮人 絶對的 福利가 同化에 在한 줄을 猛醒한지라 故로 今日에 此題로 講演 하오니 諸君은 泛然히 聽지마르시기를 望하오…”

54) 김완진, 「時代之儒教」, 『경학원잡지』, 24(1923), 81~88쪽, 이대영, 「儒者之地位及義務」, 『경학원잡

따라 유교의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인 충효 논리를 일본에 대한 충성과 복종 이념으로 치환하는 동시에 항일 유교 지식인들의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수행한 사성을 비롯한 경학원직원과 강사들은 과연 일본천황과 일본,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1915년 11월 10일에 그들이 製進한 大正天皇의 卽位大禮式獻頌文이다.<sup>55)</sup> 여기서는 박치상의 시문을 들어보자.

저기 멀리 서경 쪽을 바라다보니	瞻彼西京
만년 동안 전해져 온 황도로구나	萬歲皇都
나라 처음 세워 통서 전하였거니	勗業垂統
호욱에다 당우 같은 분들이었네	昊頊唐虞
이에 지금 이르러선 이름답거니	式至今休
밝게 빛날 운세 다시 열리었다네	熙運再啓
성인께서 황제 자리 나아가시매	聖人卽阼
성대하고 성대한 예 거행했다네	載行縉禮
이에 우리 다시금 또 중흥되어서	嗣我中興
하락에다 그 융성함 비길 만하네	河洛比隆
지극한 그 다스림에 다 속했거니	威囿至治
전대보다 이루는 공 더 훌륭하리	將多前功
청도 쳐서 정벌을 한 전쟁에서는	靑島之役
의 성했고 인도 또한 지극하였네	義盛仁至
덕과 업적 천고에도 드문 것이니	德業曠千
풍교 이제 온 사방에 퍼질 것이리	風教訖四
전각 주위 만세소리 울려 퍼지면	繞殿嵩呼
백관들이 모두 서로 화답을 하리	百工相和
산을 넘고 바다 건너 껍백을 들고	梯航玉帛
모두들 다 바다 동쪽 향해 가누나	咸趨海左
화육하여 주는 은혜 고루 입은 건	均蒙化育

지』, 26(1925), 49~52쪽.

55) 「卽位大禮式獻頌文」, 『경학원잡지』, 9(1915), 1~21쪽. 경학원 대제학, 부제학, 사성, 강사 순으로 당시 활동하였던 경학원 관계자 18명이 헌송문을 지었는데, 박치상의 글은 다섯 번째에 수록되었다.

바로 우리 접역 땅의 창생들이네	鯨域蒼生
이에 아주 짧은 시를 공손히 지어	恭述短篇
하찮은 신 정성 여기 부치웁니다	庶寓微誠

박치상은 각종 전거와 극존의 용어를 사용하며 시문을 작성하였다. 그는 일본천황을 성인과 동일시하여 그의 은덕을 칭송하였고 일본이 행한 전쟁을 인의로운 행위로 여겼으며, 한국인은 천황의 은혜를 고루 입는 신민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박치상은 일본천황과 일본국가를 충효를 바칠 대상으로, 한국인은 그들의 총량한 신민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인직을 위시한 사성들은 기관지 『경학원잡지』 간행을 주관하였다. 『경학원잡지』는 1,000부 가량이 비매품으로 간행되어 경학원 직원, 각도 장관, 참여관, 府·郡守, 지방의 향교와 관청, 주요 유교 지식인 등에 배포되었다.<sup>56)</sup> 이런 『경학원잡지』의 간행과 배포는 조선총독부의 교화정책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인직은 1913년 12월에 경학원잡지 편찬주임이 되어<sup>57)</sup> 사망할 때까지 『경학원잡지』 1호~11호를 발행한 편찬 겸 발행인이었다. 『경학원잡지』에 실린 글들은 유교 자체에 대한 학술적 내용도 있지만, 유교를 이용하여 일제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상당량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왕조의 유교 비판, 조선총독부의 농업과 공업 정책 변화의 성과, 일본인 위인의 소개, 위생에 관한 제반 상황 등 총독부의 지배정책으로 이루어진 각종 산업의 성공 사례와 더불어 총독부 지배정책에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sup>58)</sup> 그밖에 경학원 직원과 강사들의 일본천황·태자 칭송문, 일제의 지배정책 찬양, 한국인의 일본 동화를 촉구하는 글 등이 『경학원잡지』에 실려 있다. 이렇게 『경학원잡지』는 사실상 유교 지식인들에게 일제의 지배정책을 홍보하고 회유·포섭하며 일제의 총량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수단이었다.

이인직 이후 『경학원잡지』의 편찬 겸 발행인은 두 명의 사성 중에 한 명이 반

56) 經學院雜誌編纂에 關한 要項. 이것은 『경학원잡지』 매호마다 맨 끝에 판권사항과 함께 수록된다.

57) 『경학원잡지』, 1(1913), 53~54쪽. 당시 임명된 잡지 편찬 직원은 다음과 같다. 編纂長兼(呂圭亨), 主任(李人植), 委員(朴稚祥, 李種植), 事務員(李大榮, 鄭喆永), 顧問(小田省吾, 太田秀德, 高橋亨, 呂圭亨, 鄭鳳時, 鄭萬朝, 尹喜求, 李商永).

58) 류미나, 「총독부의 지배 정책과 유교이데올로기의 재편」, 한일관계사학회 미계재 발표문(2005).



드시 맡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김유제가 사망한 후 박치상이 후임으로 들어와서 원무를 수행하다가 이인직이 사망하자 경학원잡지 편찬 겸 발행인이 되어 12호~15호를 간행하였으며, 정윤수는 이인직의 후임으로 들어와서 박치상이 사망하자, 역시 경학원잡지 편찬 겸 발행인이 되어 16호~21호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정윤수의 후임으로 들어온 이대영은 부제학에 오르기 전까지 경학원잡지 편찬 겸 발행인으로 22호~39호를 간행하였다.

요컨대 사성은 경학원에서 중추적인 직책이었다. 『경학원잡지』의 편찬주임을 맡아 편찬 겸 발행인으로서 기관지 간행을 주관하였다. 경학원 강사들의 지방 순회 강연을 시찰하면서 전국 유교 지식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서를 올리는 한편, 직접 강연을 통해 유교의 보편성을 이용하여 일본의 지배정책을 적극 지지·홍보하며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동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주최하는 일본 황실의 주요 의례에 참여하여 각종 친일 시문을 지어 올렸다. 사성들은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나 강연, 친일 시문들을 다시 『경학원잡지』에 게재하여 ‘내선융화’의 의식을 확산시키고 일본 식민 통치 정책을 적극 홍보·지지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유교 정책을 철저히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IV. 講士의 活動과 役割

조선총독부는 경학원을 중심으로 경성과 지방의 유교 지식인들을 회유, 통제하려 하였다. 특히 항일의식이 강한 지방의 유교 지식인들은 조선총독부가 어떻게든 경학원으로 포섭해야 할 1차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는 지방의 유교 지식인들을 상대하는 강사들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총독부는 1912년 3월 4일 당시 대제학 박제순의 薦報로 경성 및 13도의 강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필두로,<sup>59)</sup> 여러 차례 강사를 임명한다. 1910~1920년대에 임명된 경학원 강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59) 『경학원잡지』, 1(1913), 46~47쪽. 당시 임명된 강사는 다음과 같다. 경성부(呂圭亨), 경기도(黃敦秀), 충청북도(宋秉珣), 충청남도(成樂賢), 전라북도(金東振), 전라남도(曹協承), 경상북도(朴昇東), 경상남도(郭鍾錫), 황해도(吳憲泳), 강원도(鄭鳳時), 평안남도(朴殷植), 평안북도(朴龍欽), 함경남도(韓晦善), 함경북도(李義錫).

&lt;표 4&gt; 1910~1920년대 활동한 경학원 강사 명단과 재임기간

경성부	呂圭亨(1912~1921), 鄭萬朝(1921~1925), 權純九(1928~ )
경기도	黃敦秀(1912~1921), 李學魯(1921~1938)
충청북도	*宋秉珣(1912), 韓昌愚(1912~1933)
충청남도	成樂賢(1912~1935)
전라북도	金東振(1912~1936)
전라남도	曹協承(1912~1913), 鄭鳳鉉(1913~1918), 沈瑯澤(1920~ )
경상북도	朴昇東(1912~1922), 金殷植(1923~1926), 金東鎭(1926~1927), 李會稷(1927~1929)
경상남도	*郭鍾錫(1912), 孫庚鉉(1912~1915), 鄭準民(1916~1926), 鄭汶鉉(1927~1934)
황해도	吳憲泳(1912~1926), 柳來亨(1927~1933)
강원도	鄭鳳時(1912~1929)
평안남도	*朴殷植(1912), *朴東欽(1912~1913), 金光鉉(1913~1920), 黃業(1920~1923), 崔定鉉(1923~1931)
평안북도	*朴龍欽(1912), 梁鳳濟(1912~1926), 崔錫夏(1927~1929)
함경남도	**韓晦善(1912~1913), 朴長鴻(1913~1920), 李基憲(1920~1923), 魏大源(1923~ )
함경북도	**李羲錫(1912~1913), 李鶴在(1913~1920), 申泰岳(1920~1927), 金河璉(1927~1928), 池琮洙(1928~ )

\* 경학원 강사를 거부한 유교 지식인

\*\* 경학원 강사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유교 지식인

조선총독부는 처음 경학원 강사를 임명할 때 각도의 명문가 출신이면서 학문적 명망이 높고 유교적 소양이 깊은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강사들을 우선 임명하고 추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든다면, 조금 뒤 시기이지만 1920년 7월에 함경북도 강사 이학재가 사망하자 후임으로 신태약을 임명하였다. 이 때 경학원 강사의 추천과 채용은 학무국이 담당하였고, 경학원은 학무국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서는 경학원 강사 후보자의 성품과 행실(性行)·학식·자산·세평 및 신용 정도·가정 상황·건강 상태·참고 사항 등 세밀하게 신분조사도 실시하였다.<sup>60)</sup> 이렇게 조선총독부

60) 「경학원강사 채용의 건」, 「함북강사 추천의 건」, 『경학원서류』.

가 경학원 강사 선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우선 해당 지역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쉽게 용납되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해야 하며 동시에 항일의지를 가진 유교 지식인들을 회유하려는 목적도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송병순, 곽중석, 박은식, 박용흠 등과 같이 투철한 항일의식을 지닌 유교 지식인이 포함된 것 같다. 박은식은 이미 만주로 망명한 상태이며 영남학계의 태두 곽중석 역시 경학원 강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송병순은 경학원 강사의 직첩이 내려온 것을 가장 큰 모욕으로 여겼으며,<sup>61)</sup> 얼마 후에 음독 자살하였다.<sup>62)</sup> 박용흠은 衛正斥邪派의 거두인 華西 李恒老의 門人이자 關西 儒林界의 종장인 雲菴 朴文一의 장남이다.<sup>63)</sup> 박문일은 박은식이 스승으로 섬기며 주자학을 배웠던 인물이었다. 화서학과의 학문을 이은 박용흠 역시 경학원 강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곽중석·박은식·박용흠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손경현·박동흠·양봉제를, 사망한 송병순 대신 한창우를 각도 경학원 강사로 임명하였다.<sup>64)</sup> 그런데 박동흠은 誠菴 朴文五의 장남이며 해임된 박용흠과 사촌이다.<sup>65)</sup> 박문오는 박문일의 동생으로 역시 화서학과의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박은식이 박문일과 함께 스승으로 섬긴 인물이며 관서 유림계의 추앙을 받았다. 박동흠도 가학을 이어 항일의지가 강한 유교 지식인이었으며 당시 관서 유교 지식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sup>66)</sup> 따라서 그도 경학원 강사직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평남강사로 박은식, 박동흠을 연이어 선정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강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1913년 3월에 박동흠을 해임하고 김광현을 임명하였다.<sup>67)</sup>

그런데 1913년에는 박동흠 외에 한회선, 이희석이 해임되고 박장홍, 이학재가 임명되었다.<sup>68)</sup> 자료의 미비로 한회선, 이희석이 어떤 성향의 유교 지식인인지 알

61) 宋秉珣, 『心石齋先生文集』, 年譜. “正月甲子丁丑日 府經學院講士職帖之報至 先生曰 此吾地盡頭也 何山非西山 何水非東海 自靖以獻于先王先聖 是今日之大願也.”

62) 금장태·고광직(공저), 『儒學近百年』(1)(한국학술정보, 2004), 194~195쪽.

63) 朴文五, 『誠菴集』권4, 「先考稼隱公行狀」.

64) 『경학원잡지』, 1(1913), 51쪽~55쪽.

65) 朴文五, 『誠菴集』권4, 「先考稼隱公行狀」.

66) 李觀求, 「朴東欽」, 『義勇實記』. 필자가 참고한 『의용실기』는 『국학연구』, 6(국학연구소, 2001), ‘資料紹介’란에 영인된 것을 이용하였다.

67) 『경학원잡지』, 1(1913), 55쪽.

68) 『경학원잡지』, 1(1913), 51쪽~55쪽.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경학원 강사로 활동한 내용이 없고, 후임으로 들어온 박장홍과 이학재가 조선총독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며 경학원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경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인물들로 보인다.

이처럼 항일의식이 뚜렷한 유교 지식인들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경학원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경학원에 대한 세평도 좋지 않았다.<sup>69)</sup> 결국 1910~1920년대에 활동하는 경학원 강사는 여규형, 정만조 같은 유명 인물과 각 지역에서 명망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친일적 성향을 지닌 유교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경학원을 전시대의 성균관을 계승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의견을 제시한 유교 지식인들도 존재하였다. 1915년 5월에 李炳憲은 유교와 경학원의 역할에 대해 조선총독부에게 8조목의 청원서를 올리기도 하였다.<sup>70)</sup> 이런 점은 개인의 친일 성향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교 전통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유교 지식인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상황과 여건만 허락된다면 경학원의 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독훈시에 따라 경성 경학원에서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을 강연회 일자로 잡아 주로 명륜당에서 월차 강연회를 가졌다. 지방은 각도에서 선발된 13도 강사들이 해당 지방 도내를 순회하며 강연하거나, 경학원의 부제학, 사성 이하 직원들이 출장하여 순회강연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위해 1913년 ‘經學院 講士 巡講에 關한 件’을 마련하여 강사들은 매년 춘추 2기 석전제를 행한 후 순회 강연을 하도록 하고 대제학 이하 강사들이 순강을 할 때에는 일정을 정하여 도장관과 경무국장에게 届出하면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각 지방에 통첩하였다.<sup>71)</sup>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경학원 직원과 강사들에게 지방 순회 강연을 조사하고 보고하게 하였다. 다음의 표는 그런 사정을 잘 보여 준다.<sup>72)</sup>

69) 《동아일보》, 1924년 7월 22일자. “...경학원이라는 것은...조선총독부 소속 유교본부이지요 대제학이 있고 부제학이 있고 사성이 잇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업시 벼슬맛 잘 아는 분네들 머리가 터져가며 다툰답니다...”

70) 「경상남도 함양군 유생 이병헌 근재배상서」, 『경학원잡서류첩』.

71) 이명화, 앞의 논문, 94쪽; 『경학원잡지』, 1(1913), 57-58쪽.

72) 이 상황표는 『경학원서류』에 수록되어 있다. 원래 1918년까지 강사들의 지방 순회 강연 상황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서는 2년의 상황만 소개하였다. 소개한 강사 외에 鄭鳳鉉, 李鶴在, 鄭準民의 활동 상황이 들어 있다.

&lt;표 5&gt; 各道講士巡講狀況表

年月	道別	巡回郡數	巡回面數	講演回數	講士	聽講者數
1912년 4월	경기	3	3	3	黃敦秀	376
5월		6	6	6	"	375
8월		2	2	2	"	178
10월		3	3	3	"	233
	전남	14	15	15	曹協承	1,926
	황해	6	6	6	吳憲泳	370
11월	경기	6	6	6	黃敦秀	376
	충남	7	7	7	成樂賢	492
	경남	5	5	5	孫庚賢	497
12월	충북	1	3	3	韓昌愚	136
1913년 1월	경기	3	3	3	黃敦秀	541
	충남	1	1	1	成樂賢	42
2월	충북	1	10	10	韓昌愚	314
4월	경기	3	3	3	黃敦秀	458
5월	함남	1	1	1	朴長鴻	57
6월	황해	1	3	3	吳憲泳	229
10월	경기	17	17	17	黃敦秀	2,350
	충북	13	16	16	韓昌愚	1,400
	충남	18	19	19	成樂賢	1,545
	전북	10	10	10	金東振	832
	황해	7	7	7	吳憲泳	1,069
	평남	11	11	11	金光鉉	1,605
	평북	9	12	12	梁鳳濟	801
	강원	9	9	9	鄭鳳時	3,458

1910~1920년대의 경학원 강사들 중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강사들로 여규형, 황돈수, 성낙현, 오헌영, 정봉시, 김광현, 정준민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방 순회 강연에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였을까? 『경학원잡지』 「지방보고」에 그들이 강연한 내용을 경학원에 보고한 기록이 있는데 간혹 강연한 전문이 실려 있다. 성낙현은 1913년 1월경에 新昌郡 향교에서 ‘儒教宗旨’를 강연한 것을 보고

하였는데, 이것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sup>73)</sup>

…我朝鮮이 數千年以來로 所以尊崇其敎하고 培養其道者 靡所不用其極而挽近敎化 寢衰하고 習俗이 解弛하야 人不修學하고 士不講道하니 於是乎滔天之慾浪을 莫遏하고 掃地之廉防을 難回하야 斯道晦塞이 達於極度러니 先帝陛下(명치천황-필자) 庸是憂慮하사 頒下帑金하와 勅設經學院하시고 以斯道闡明으로 爲出治之大本이실새 總督閣下 對揚聖意하야 一般職員을 任命하고 各道講士를 選任하야 文廟享祀를 永久不絶하며 彝倫을 扶持하고 弊風을 矯正하야 使斯民으로 共臻文明之域케 하시니 本人이 猥膺是任하야 現將行巡列郡하야 經學院趣旨를 說明하고 總督府訓示를 傳布하며 仍以倫理風敎로 築底勸諭코자 하오니 顧此蔑學이 極知僭踰이오나….

여기서 그는 유교중지의 제목과 맞지 않게 경학원취지를 설명하는 것과 총독부 훈시 전포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있다. 즉, 명치천황이 경학원 설립을 찬양하고 총독부가 그 뜻을 이어받은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선 총독부의 유교정책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자신을 일본천황의 신민이라는 의식이 들어 있다.

다음은 1916년 3월경 경기도 강사 황돈수는 도내를 순강하면서 향교 및 학교의 정황을 보고한 내용이다.<sup>74)</sup>

一, 公立學校學生을 見하오는즉 浮薄한 態色이 無하고 能히 德性의 涵養하고 知識의 發展함을 努力奮勵하는 思想이 有하며 私塾學生도 當日應講者 三千餘人에 能通庸學語孟章句하고 經義를 問하온즉 應答이 如流하오니 此는 教育勅語의 聖旨의 萬分之一이라도 奉體하는 兆朕이오.

一. 紳士의 風儀를 見하온즉 隨時變易하는 造詣가 文明化域에 優優이 到達하온 中 前博士李學魯씨가 直員 兪相晦氏와 協議하야 發言호대 帝國文化가 猗歟盛矣라. 御帑金을 降하사 特히 經學院을 設立하고 孔子를 奉崇하사 春秋俎豆를 精享하고 地方 文廟에 享儀가 昭格하니 其爲一般儒林者 豈無一半分對揚

73) 『경학원잡지』, 1(1913), 87~89쪽.

74) 『경학원잡지』, 11(1916), 81~83쪽.

之心이리오하야 乃報于本郡郡警兩廳하고 旁通于一郡多士하야 頗得自願誠義  
 金多少額하야 修補位櫝之朽傷과 籩豆之破缺과 床卓之折碎하야 皆着染하고 樽  
 爵을 一新改造하고 書冊을 一切準備하야 使一方多士로 知有聖學하오니 此는  
 國家에서 聖人을 崇奉하야 敎化發達하시는 至意를 萬分之一이라도 奉行하는  
 兆朕이라(후략).

황돈수는 도내 학생과 유림의 기풍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은 천황의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하며 일제의 지배정책을 찬양하고 있다. 아마 다른 경학원 강사들의 강연 내용도 성낙현, 황돈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유교적 소양이 깊은 강사들이 하는 경학강연이 수준이 낮게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조선총독부가 강사들의 활동과 강연 내용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1918년 9월에 나온 「講士注意事項」<sup>75)</sup>과 「經學院講演改良에 관한 件」<sup>76)</sup>에서 강사의 활동과 강연 내용의 통제 및 변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講士注意事項」은 강사에게 11조목의 주의사항을 논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경학원은 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인심을 감화하는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거만한 태도를 삼가고 정치에 관한 談評을 신중히 할 것을 들고 있다. 그밖에 순회강연은 교육에 관한 勸戒를 근본으로 하고 聖經賢傳의 敎훈을 여기에 대응시키고 時宜에 적합하게 연설하고 미리 해당지역의 弊風을 조사하여 강연할 때 그것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과 순회강연의 상황은 실행한 후 지체 없이 대제학에게 보고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칙어를 근본으로 하고 성경현전의 敎훈을 대응시켜 시의에 적합하게 연설하라는 사항이다. 결국 경학 강연은 더 이상 유교의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충효를 가지고 교육칙어를 해설하는 강연으로 전락된 것이며 천황을 칭송하는 것은 필연적이 된다.

그리고 「經學院講演改良에 관한 件」에서 경학원 강사들이 지방에 순회 강연을 할 때에 대제학이 지방장관과 함께 강연일정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는 강사 강연 외에 道, 府, 郡廳 관리와 관공립 학교직원들의 강연을 병행케 하는 것을

75) 『경학원잡서류철』.

76) 『경학원잡지』, 19(1918), 34쪽.

공식화시켰다. 경학원 강사들이 주로 경학을 위주로 강연하였기에 평소 지방에 칩거하던 유교 지식인들이 경학 강연을 듣고자 모였다. 총독부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식민지 교육, 권업, 기타 신정의 취지와 총독부가 사회교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을 선전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sup>77)</sup>

이렇게 경학원 강사들은 해당 지역 유교 지식인들의 정황을 시찰·보고하는 한편, 유교의 충효덕목을 강조하며 일제의 지배정책을 홍보, 지지하는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역할은 순회 강연을 통해 지방 유교 지식인들의 항일 의식을 제압하고 그들을 일본제국의 충량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 V. 맺음말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선 조선 사회의 전통적인 엘리트였던 유교 지식인들을 회유, 포섭하여야 했다. 또한 한국인들에게 일본 천황과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요할 지배이념의 확립도 필수적이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일제가 만든 기관이 경학원이었다. 경학원은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의리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조선 유교의 특성을 변질시켜 일본 천황과 일본제국에 충성을 하도록 일제가 설립한 조선총독부 직속 기관이다.

일제는 경학원을 통해 유교의 보편적인 가치인 忠孝의 이념을 맹목적인 충성으로 바꿈으로써 한국인들을 일본제국에 순종하는 신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친일적 성향의 유교 지식인들을 경학원의 인적구성원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총독 통치에 필요한 선전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경학원의 인적구성은 경학원의 공식 직제 속에 포함된 관료로서 經學院職員과 명예 직인 講士로 나뉜다. 경학원규정에 따르면 경학원에는 정식 직원으로 大提學 한 사람, 副提學 두 사람, 祭酒 다섯 사람, 司成 약간 명과 直員 약간명을 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중 祭酒는 실제로 임명되지 않았으며 사성과 직원은 각각 2명, 3명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

---

77) 이명화, 앞의 논문, 97쪽.



1910년~1920년대에 경학원에 참여한 유교 지식인들은 대체로 상당한 명망을 지녔으며 친일성향이 농후한 인물들이었다. 그들 다수는 합병 이전부터 일본 문명에 경도되었고 친일 성향의 단체에 활동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제학, 부제학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귀족이거나 친일적 성향의 인물 중 상당히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으며 대부분 고령이었다. 대제학, 부제학은 경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으나, 경학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활동하였던 것은 사성이었다. 사성은 경학원의 일상적 주요업무인 각종 강연과 기관지의 발행을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경학원규정에 재임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경학원의 직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는 이상 대체로 종신직으로 유지되었다.

경학원의 강사는 경학원의 직원에 포함되지는 않는 명예직이지만 매년 일정한 수당을 받았고 교통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성부와 13도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림이 강사로 임명되었는데, 경학원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경학강연과 지방순회강연을 이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조선총독부는 각도 강사를 선정하는 일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강사 중에서 경학원 부제학, 대제학까지 임명되는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강사도 1930년대까지 재직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은 한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학원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사성과 강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성은 경학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지방 순회 강연을 시찰하면서 전국 유림들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서를 올리는 한편, 직접 일본의 지배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동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주최의 황실관련 주요 의례에 참여하여 일본 황실에 충성을 다짐하는 시문을 지어 올렸다.

또한 사성은 경학원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기관지 『경학원잡지』의 간행을 주관하였다. 『경학원잡지』는 계간지로 1913년 12월 5일에 처음 발간되어 1944년 4월까지 총 48호가 발행되었다. 『경학원잡지』에 실린 글들은 유교를 이용하여 일제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조선왕조시대의 유교 비판, 조선총독부 정책의 성과와 성공사례, 일본 위인의 소개 등과 함께 총독부 지배 정책에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성을 비롯한 경학원 직원과 강사들의 일본천황 칭송문, 일제의 지배정책 찬양, 한국인의 일본 동화를

촉구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경학원잡지』는 유교 지식인들에게 일제의 지배정책을 홍보하고 회유·포섭하며 일제의 총량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려는 수단이었다.

경학원 강사들은 해당 지역 유교 지식인들의 정황을 시찰·보고하는 한편, 유교의 충효덕목을 강조하며 일제의 지배정책을 홍보, 지지하는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일본 황실 관련 주요 의례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일본 천황을 칭송하는 시문 등을 지어 올렸다. 『경학원잡지』에 강사들이 올린 시문, 논설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경학원 강사들의 중요 역할은 순회 강연을 통해 지방 유교 지식인들의 항일 의식을 제압하고 그들을 일본제국의 총량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1910년~1920년대에 보여준 경학원 사성과 강사의 역할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1910~1920년대에 활동했던 경학원 사성과 강사들은 대부분 학문적 명망과 유교적 소양이 깊은 인물들이었다. 그에 비해 1920년대 말부터 경학원에 학문이나 유교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유교 지식인이라 할 수 없는 인물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경학원에 참여한 유교 지식인들의 유교 인식의 변화와 일본 유학의 영향, 관계 등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였다. 이미 1910년대부터 高橋亨 등 일본 학자들이 경학원에 참여하면서 일본 유학의 영향도 사실상 보이고 있다.<sup>78)</sup> 1930년대부터는 사실상 한국 유학의 전통적인 특성은 사라지고 일본 유학의 영향 속에서 皇道儒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별도의 논문으로 검토할 것이다.

## 참고문헌

『經學院雜誌』; 『經學院書類』; 『經學院雜書類級』; 『心石齋先生文集』; 『誠菴集』 권4;  
『先考稼隱公行狀』; 『義勇實記』; 『續陰晴史』; 『孔子教會之既往及將來』; 『大典會通』;

78) 『경학원잡지』에 高橋亨의 글이 세 편 수록되었다, 2편은 그가 강연한 내용으로 「儒敎의 根本義」(『경학원잡지』, 10, 1916, 64~68쪽)와 「儒敎의 庶民的 發展」(『경학원잡지』, 15, 1917, 69~75쪽)이 그것이다. 高橋亨은 특히 후자의 강연에서 조선은 성리학의 폐단으로 서민 교화에 실패하였다고 비판하고 일본유학자 中江藤樹의 예를 유교의 서민적 발전으로 들고 있다. 그 내용의 속뜻은 한국인도 현실 수용으로의 ‘順從’을 덕목으로 여기는 일본 유학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총독부가 유교를 사회 교화에 이용하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총독부관보』;  
『공립공문서관 명치 41년 서훈록』;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대동학회월보》; 《기호홍학회월보》.  
『慶州金氏鶴洲公派世譜』, 2000.
- 다지리 히로유키(田尻浩幸), 『이인직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이기동·김필동(외), 『日本思想의 理解』. 서울: 시사일본어사, 2002.
- 금장태·고광직(공저), 『儒學近百年』(1).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87~122쪽.
- 정규영, 「조선총독부의 조선유교지배」. 『학생생활연구』 4, 1996, 53~75쪽.
- 류미나,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 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文化』 26, 2005, 157~189쪽.
- 류미나, 「총독부의 지배 정책과 유교이데올로기의 재편」. 한일관계사학회 미계제 발표문, 2005.
- 朴羊信,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東洋學』 37, 2005, 69~89쪽.
- 鄭烘烈, 「『大東學會月報』 詞藻欄 所載 漢詩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姜明官, 「한문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 1985, 195~252쪽.
- 權五榮, 「申箕善의 東道西器論研究」. 『청계사학』 1, 1984, 99~135쪽.
- 유준기, 「1910년대 전후 일제의 유림친일화정책과 유림계의 대응」. 『한국사연구』 114, 2001, 57~91쪽.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李大榮의 京畿道遊說 報告 件; 高秘收第五二八五號ノ一」. 『統監府文書』 10권.
- 小松綠, 『明治外交秘話』. 東京: 原書房, 1976.
- 柳美那, 「植民地時期朝鮮における經學院: 儒敎敎化機關と儒敎イデオロギーの再編」. 『朝鮮史研究會 論文集』 42, 2004a, 105~132쪽.
- 柳美那, 「植民地時期朝鮮における明倫學院 ‘儒敎振興’을めぐ는植民地權力和儒敎勢力の相克」. 『史滴』 26, 2004b, 36~50쪽.

##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1910~1920년대에 경학원(經學院)에 참여했던 유교 지식인들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본 것이다. 경학원은 조선총독부의 직속 기구로 1911년에 설립되었다. 경학원의 설립 목적은 한국의 유림들을 포섭하여 항일 의지를 꺾는 한편, 친일유림을 양성하여 총독부의 통치에 필요한 교화와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에 있었다.

경학원의 활동에 사성(司成)과 강사(講士)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성은 경학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지방 순회 강연을 시찰하면서 전국 유림들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서를 올리는 한편, 직접 일본의 지배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조선과 일본의 완전한 동화를 주장하는 강연을 하였으며, 일본 황실에 충성을 다짐하는 시문을 지어 올렸다. 사성은 경학원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기관지 『경학원잡지』(經學院雜誌)의 간행을 주관하였다. 『경학원잡지』에 실린 글들은 유교를 이용하여 일제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사성을 비롯한 경학원 직원과 강사들의 일본천황 칭송문, 일제의 지배정책 찬양, 한국인의 일본 동화를 촉구하는 글 등이 실려 있다.

경학원 강사들은 해당 지역 유교 지식인들의 정황을 시찰·보고하는 한편, 유교의 충효덕목을 강조하며 일제의 지배정책을 홍보, 지지하는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경학원 강사들의 중요 역할은 순회 강연을 통해 지방 유교 지식인들의 항일 의식을 제압하고 그들을 일본제국의 충량한 신민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 투고일 : 2007. 1. 15.

● 심사완료일 : 2007. 2. 27.

● 주제어(keyword) : 경학원(Kyonghagwon), 사성(Sasung), 강사(Gangsa), 경학원잡지  
(Kyonghagwonjobji)